

# KBO 144경기 대장정...몸풀기는 끝 이제부터 진검승부

시범경기 부진했던 크론, 정규시즌 개막하자 맹타  
두산, 시범경기 1승으로 끝냈지만 개막 2연전 승리

몸풀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승부다. 시범경기로 예열을 마친 프로야구는 지난 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44경기 대장정에 돌입했다. 컨디션 조절을 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 올리는 데 집중했던 시범경기는 잊어도 좋다. 본 게임에 돌입하자 우려를 샀던 이들이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범경기 내내 부진했던 케빈 크론(SSG 랜더스)은 정규시즌 시작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KBO리그에 처음 입성한 크론은 시범경기서 타율 0.176(34타수 6안타)에 그쳤다. 홈런 2개를 쳤지만 볼넷 3개를 고르는 동안 삼진 9개를 당하는 등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2일 NC 다이노스와 개막전부터 멀리 히트를 때려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날 날엔 시즌 첫 홈런까지 날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시범경기에서 타율 0.182(33타수 6안타)로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야시엘 푸이그(키움 히어로즈)도 시즌 출발이 나쁘지 않다. 개막 2연전에서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냈고, 볼넷은 3개를 골라내 선구안까지 증명했다. 삼진은 1개만 당했다. 시범경기 동안 우려를 샀던 팀 중 하나인 두산 베어스도 개막 2연승으로 정규시즌을 기분 좋게 열었다. 두산은 올해 시범경기에서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승만 거두고 8패(3무)를 당하며 고전했다. 매년 내부 프리에이전트(FA)가 빠져나가며 전력 약화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두산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던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두산은 한화 이글스와 두 경기를 모두 잡으며 승리로 시즌 시작을 알렸다.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부상을 당했던 '거포' 양석환도 개막전부터 홈런을 신고했고, 4번 타자 김재환도 마수같이 홈런을 날렸다. 도중 에이스 최원준도 6이닝 무실점 패투로 첫 단추를 잘 꿰었다.



모두가 반동에 성공한 건 아니다. 오히려 시범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뒤 정규시즌에서 집중 견제 속 어려움을 겪는 선수도 있다. 시범경기 타율 1위(0.432)로 돌풍을 일으켰

던 '루키' 김도영(KIA 타이거즈)은 LG 트윈스와 개막 2연전에서 9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올해 12차례 시범경기에서 나왔던 김도영이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던 건 단 1경기뿐이다.

그만큼 시범경기와는 다른 정규시즌의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슬비기자

## 성남에 시즌 첫 승 안긴 박수일, K리그1 7R MVP '멀티골' 안양 김경중, K리그2 8라운드 MVP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며 이날 성남의 3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박수일은 특정 외에도 경기 내내 성남의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다. 양 팀이 7골을 주고받은 성남과 수원FC의 경기는 K리그1 7라운드 베스트매치에 선정됐고, 7경기 만에 시즌 첫 승에 성공한 성남은 베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다. 라운드 베스트11 공격수에는 무고사(인천), 물리치(성남), 엄원상(광주)이 오르고, 미드필더는 박수일과 함께 안진범(성남), 백승호, 김보경(이상 전북)이 선

정했다. 수비수로는 홍정호(전북), 김동민(인천), 김민혁(성남)이 포함됐다. 골키퍼는 송범근(전북)이다. 2부리그인 K리그2에선 FC안양의 김경중이 8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김경중은 지난 2일 김포FC와 홈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며 안양의 3-2 승리를 견인했다.

성남FC에 시즌 첫 승을 안긴 박수일이 하나원구 K리그1 2022 7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일 수원FC와 원정 경기에서 1골을 넣어 성남의 4-3 승리를 이끈 박수일을 K리그1 7라운드 MVP로 뽑았다고 5일 밝혔다. 프로 데뷔 후 첫 라운드 MVP다. 이 경기에서 박수일은 후반 14분 안진범이

## 벤투호 '황태자' 황인범, FC서울 입단 확정...6월까지 계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FIFA 특별 규정 적용 받아 루빈 카잔과 계약 일시 중단



벤투호 '황태자' 황인범(26)이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유니폼을 입는다. 서울 구단은 5일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과 오는 6월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황인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특별 규정을 적용받아 러시아 프로축구 루빈 카잔과 계약

이 잠시 중단돼 일시적으로 자유계약 신분을 얻어 서울과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구단은 "특별 규정 이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황인범이 K리그에 잔류할 경우 2022 시즌 말까지 함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2015년 대전에서 프로로 데뷔한 황인범은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밴쿠

버 화이트캡스로 이적하기 전까지 K리그 통산 106경기에서 16골 13도움을 기록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 2020년 8월부터 러시아 리그에서 뛰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황태자'로 불리는 황인범은 A매치 31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구단은 "황인범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왕성한 활동량과 넓은 시야까지 갖춰 빌드업 축구를 추구하는 서울 축구 스타일에도 부합해 기존 기성용, 팔로세비치, 이요한 등과 함께 팀의 중원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무대로 돌아온 황인범은 "어릴 때 김진규, 기성용 등 좋아하던 선수들이 활약하는 서울의 경기를 재밌게 즐겨보던 기억이 있다"며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다. 상암을 가득 채운 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받으며 하루빨리 경기를 뛰고 싶고, 저 또한 팬들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현재 부상에서 회복 중인 황인범은 조만간 FC서울의 훈련에 합류해 K리그 무대에 복귀할 예정이다. 뉴스

## 고진영, 세계랭킹 1위 수성...37계단 상승한 컵초 16위

박인비 6위·김세영 9위

고진영(27)이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지킨 가운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을 우승한 제니퍼 컵초(미국)가 37계단 상승한 16위에 올랐다. 고진영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말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지킨 가운데 벨리 코다(미국), 리디안 고(뉴질랜드), 이민지(호주), 아타야 티피쿤(태국)이 2-5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박인비(34)는 6위에 자리했고, 김세영(29)은 8위에서 9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치른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컵초는 지난주 53위에서 37계단 상승한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는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지켰다. 2주 연속 1위다. 그 뒤를 온 람(스페인), 폴린 모리카와(미국),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5위까지 자리했다.



고진영이 3월 3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에 열린 2022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브론 챔피언십 첫날 16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고진영은 2오버파로 첫날을 마쳤다.

한국 선수 중엔 임성재(24)가 2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시우(27)는 49위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서 첫 승에 성공한 JJ스핀(미국)은 242위에서 103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한편 타이거 우즈(미국)는 973위다.

뉴스

## 토트넘·맨유, '기적의 사나이' 에릭센 눈독

크리스티안 에릭센(브렌트포드)이 '기적의 사나이'로 떠오르자 예전 친정팀인 토트넘 핫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5일(한국시간) 에릭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포드로 돌아온 뒤 빠르게 기량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에 토트넘과 맨유가 미드필드 보강을 위해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첼시전서 역전 결승골 넣으며 브렌트포드 4-1 대승 견인  
최근 덴마크 대표팀 A매치 2연전서도 골 넣으며 기량 회복

에릭센은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 대회 조별리그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심장에 인공제세동기를 부착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는 제세동기를 부착한 선수가 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인터 밀란과 계약이 파기됐다. 에릭센은 소속팀이 없는 무적 선수가 됐지만 굴하지 않고 치료와 재활에 힘을 기울였다. 올해 들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태까지 컨디

션을 회복하자 브렌트포드가 에릭센을 불렀다. 브렌트포드에는 에릭센과 연령별 대표팀에서 함께 했던 '스승' 프랭크 토마스 감독이 있었다. 토마스 감독의 적극 지원 아래 에릭센은 예전 기량까지 되찾았다. 덴마크 대표팀에도 뽑히며 A매치에서 득점까지 올렸다. 지난달 27일 열린 네덜란드와 평가전에서 자신의 A매치 37번째 골을 터뜨리더니 지난달 30일 세르비아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했다.

에릭센은 A매치가 끝난 뒤에도 힘을 냈다. 지난 3일 영국 런던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첼시와 2021~22 EPL 원정경기에서 역습 상황을 통해 첼시의 골문을 열었다. 에릭센이 마치 발에 모터라도 단 듯 질주하며 골문을 여는 모습은 관중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에릭센은 브렌트포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6개월 단기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시즌이 끝



나면 다시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에릭센을 영입하는데 이적료는 없다.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에릭센이 계속 예전의 기량을 보여준다면 미드필드진에 큰 힘이 된다. 특히 토트넘은 에릭센의 친정팀인데다가 인터 밀란 시절 현재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함께 했다. 에릭센의 복귀 움직임에 콘테 감독은 토트넘 훈련장까지 내줄 수 있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 테안 쿨루세 프스키를 앞세워 급상승열을 타고 있다. 여기에 에릭센이라는 결출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더한다면 예전 텔레 알리가 있었을 때처럼 'DESK 라인'의 부활도 가능하다. 뉴스